朝鮮日報
朝刊
本紙朝夕刊十二面

社說

敎育上의體罰禁止問題
—仁川某校의不祥事를보고—

一

「할머니 저는 지난 六日 某先生한테 體操를 잘못한다는 理由로 아랫배를 채인까닭으로죽어갑니다」라는 一語은 去十二日에 死去한 仁川某公立普通學校四學年生張君의 臨終時의 遺言이라한다。이一事에 對하야 單純한 理論上으로 말하면 그할머니의 말의 眞否를 疑心할수도 잇다。그러나 目前에 죽어가는 孫子를 딸아서 그가 거즛말을 햇슬것으로는 常識上생각할수 업는것이오 또한 故로 最後의 瞬間에 잇서서 自己를 訓育해 주든 恩師에게 對하야 까닭업는 誣陷中傷의言辭를 弄하엿슬것이라고도 常識上생각할수업는것이다 故로 問題는 張君의 死因이 全혀 被蹴一事에만 잇섯느냐? 하는 一點에 잇고、被蹴 그自體에 對해서는 다시 疑心할 餘地가 업시 이것을 잇섯다고 보는것이 事實이라고 우리는 推斷한다。

二

何如間、司法當局은 某先生의 行爲와 張君의 死因을 追窮할 것이다。그結果、先生에게 그러한 行爲가 잇섯고、張君의死因이 全혀 그一事에만 잇섯다는것이 判明되면 그는 흠으로 敎育法規에만 違反햇슬뿐이 아니요、또한 刑法을犯한것이니까 그는 一方 免職處分을밧는 同時에 他方刑法上의傷害罪、甚하면 傷害致死罪까지도 지게 될것이다。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問題삼고저하는것은 刑法法規에對한 犯觸問題가 아니요、오로지 敎育法規에 對한 犯觸問題다。普通學校規定 第八十條를 보면 거기는『學校長及 敎員은 敎育上必要로 認할時는 兒童에게 懲戒를 加함을得함。但 體罰을 加함을 不得함』이라는 明文이잇다。그런데 今番、問題를 提供한 某先生뿐만이 아니라 朝鮮에는 아직 舊習이 남어 잇서 가지고 先生으로서 兒童에게 體罰을 加하는例가 種種 잇는모양이오、特히 今番도 그러하거니와 體操先生에게 그러한例가 만흔모양이나 이것은 朝鮮敎育界全體와 被敎育者인 生徒側으로보아서는 勿論、此를 先生側으로 보아서도 實로 寒心한 일이라고 할수밧게 업다。

三

吾人은 勿論、저 루쏘ㅣ와가티『兒童이 萬若 過失이 잇스면 이것을 허물하지말고 그허물로부터 生하는 自然의 結果에依하야 스사로 懲罰이 어떠한것이라는것을 알게하라』라 하야 敎育上의 人爲的懲罰의 全部를 드려 反對하는者는 아니다。訓育上、懲罰의 必要한 때가 만흘것을 認定한다。그러나 그懲罰은 非難、誡飭、譴責、起立、退場等의 名譽罰만으로 足한境遇가 만흘것이요、가장 甚한 者에 對해서도 禁足、留置等의 自由罰이면 足할것이오、다시 이以上의 百害無一利한 體罰을 加할 必要는 업는것이다。日本全領域內의 敎育法規가 다 懲戒를 認하면서도 體罰을 禁止한것도 亦是、이 敎育上의 原理原則을 體한것임에 틀림이 업는 것이다。

四

「體罰이란 그害毒때문에 兒童으로하여금 自尊心을 失하고 奴隸根性을 養하야 卑屈해지게할뿐만 아니라、體罰은 克己自制의 德을 養하는데 毫末의 效果가 업고 도리혀 그目的으로하는 事項을 厭忌케하는것이다。」는 有名한 哲學者 쫀·롴의 말이다。그뿐아니라、「懲罰은 道德上의 過失에 對하야 此를 行할것이오、學科때문에 罰해서는 안된다。」「先生되는者의 忿怒에 乘하야 罰하지마라。」「懲罰時에는 激語를 發하지마라。」「誤解하야 叱咤하지 마라。」等等은 다 兒童을 懲戒할때에 잇서서 先生이 遵守할 鐵則이다。그런데、體罰은 그本質上 他에 對한 暴行、脅迫과 同性質의것인故로 (一)忿怒 (二)激語 (三)誤解로부터의 叱咤를 內包하는 것이다。그럼으로 此에 常習을 가진 先生은 不知不識間에 學科때문에도 體罰을 使用하기에 至하고 말기가 쉬운것이다。이런 意味에 잇서서 우리는 全朝鮮七十萬의 兒童의 健全한 發達을 爲하야 先生諸位의 深甚한 反省을 促하는 同時에 監督當局에 對해서도 斯種不祥事의 根絶을 爲하야 適當한 對策이 잇기를 바라는 바이다。

中央은領土保全과 條約完整에努力
滿洲國承認은絕對로不可能
蔣氏라디오演說內容

【上海十四日發同盟】蔣介石氏는 十三日 南京에서의 二中全會第三次大會討論後 對日和平限度에 對하야 大要左와如히 演說하얏다

蔣介石氏의 演說은 國民政府의 機關通信및 라듸오로써 全國에 傳하얏는데 蔣介石氏演說은 現南京政權의 對日態度를 가장 明白히 한것으로 各方面의 注意를 惹起하엿다 蔣介石氏의 演說은 左와如하다

中央은 昨年五全大會以來 一刻이라도 救國工作을 잇고잇지안타 中國人인者는 누구나『救亡禦侮』를 知悉하고 잇다 그러나『救亡禦侮』는 如何한 段階를 밟을것인가를 考察하여야한다 가장 重要한것은 그限度를 明白히하고 國策의 標準을 決定함에 잇다 五全大會는『和平工作은 完全한 絕望時期가 되지아니면 此를 放棄치안는다 犧牲도 最後關頭에 이르지안으면 輕輕히 此를 말하지안는다』라는것을 決定하엿다 그리고 中央의 最低限度는 領土의 保全과 條約을 完整함에잇스며 또 我等에게 滿洲國을 承認하라고 脅迫하는데가 잇다면 我等은 忍耐할수업는 最後의 時期에도 我等의 領土를 侵害當하고 또 外交方策으로서 그侵害를 排除치못하는 때야말로 國家民族의 政策에 根本的改正을 要하는 때로 이것은 卽我等의 最後의 關頭이다

決議無視를口實로 蔣氏軍事行動敢行?

【廣東十三日發同盟】二中全會의 西南機關의 撤廢決議에 西南側은 十四日 黨、政部의 聯合會議를열고 對策을 協議決定할터인데 李宗仁氏는 今朝 左와如히 語하얏다

西南側의 五項의 提案을 無視하는 二中全會의 決議한것은 一顧의 價値도 업는것으로 余는 全然 此를不問에附한다 問題는 單히 決議案이 아니라 中央側이 大規模의軍事行動에잇는 二中全會決議는 全然 蔣介石의 欺瞞平和工作으로그의眞意는 最初부터 西南武力解決에 잇슴은내가 數次말한바이다 陳濟棠氏는 徹底的反蔣決意를하야 兩廣은어데까지 共同一致同一態度를取하고 잇다 蔣介石은 西南側의 二中全會決議案拒否를 口實로 十日以內에南進軍할터임으로 반다시 南北의一大武力衝突은 免치못할것이다

또陳濟棠氏에對한 中央側入京要求에 對하야 第一集團軍各將領은 十四日朝 連名으로 此를 拒絕할 旨를通諜하엿다

政府米買受申請 七十萬五千石突破

【東京電話同盟】公定價格에 依한 政府米買受申請은 地方飯米不足에 依하야 拂下開始以來每日相當한 數量에 達하는대 去十一日은 一千六百三十一石餘의 買受申請이 잇서 드듸어 七十萬石臺를 突破하엿다 그리고다시十三日은 一氣에 五千六百六十石餘의 買受申請이 잇서 昨年十二月一日以來의 累計 七十萬五千九百七十六石四斗로되엿다 內譯은如左 (單位石)

八年度產米	七〇一、一〇八、四
九年度產米	一、八〇六、〇
十年度產米	三、〇六二、〇

決裂回避次 英國態度緩和?

【몬트로十三日發同盟】海峽條約改訂會議英國代表렌델氏는 休會期間을 利用하야 倫敦에 歸還하야 本國政府와協議를 遂한바 氏는 今後會議에處할 新訓令의 內容에關하야는 緘口不言하나 英國代表部에서는 몬트로會議가 드디어 對立激化하야 決裂될것을 念慮하고 新條約修正에 和協的變更을 加할것을 訓令하엿다고 解釋되다 렌델代表는十三日午前 會議再開를 압두고 代表부소氏와 會見하야 協議를한바 불크르·봉소兩佛國代表는 十三日 會議終了後 蘇聯代表리트비노프氏와 會見할豫定이다 이結果英國側의 讓步와 佛國代表의 斡旋으로써 戰時에 잇서서의 軍艦의海峽通過를 中心으로한 英蘇間對立은 妥協點에 到達될듯하다

白國外相佛英大使에 伊의不參加回答提示

【부랏셀十三日發同盟】白耳義外相안리·스파ㅣ크氏는 十三日午前 駐白佛大使라로치氏及 英大使오-베이氏를 招致하고 로카르노會議不參加에關한 伊太利政府의回答文을提示하엿다 伊太利政府의 回答文內容은如左하다

伊政府의 로카르노會議參加에關한 白耳義政府의招請狀은 이제接受하엿다 伊太利政府는歐洲平和確保의 積極的協力을 不惜하나 現在地中海에서 一定한協定의 存續이업다 伊政府가 事實上 今次會議에 參加하지못하는것을 遺憾으로 녀인다 伊政府는 다시 本會議에 獨逸政府의 參加를 要望하는것이 至當하다고 思惟한다

義務敎育延長으로 文部省關係首腦會議

【東京電話同盟】平生文相은 十三日午後二時부터 永田町文相官邸에 山本、河原兩次官、作田參與官、菊池普通、山川社會兩局長等義務敎育年限延長案關係首腦部를 招集하고 事務當局에서 再調査를 遂한 財政的緩和를 圖하려하는 完成年度延長案을 中心으로 協議를遂하엿다 일즉이政友會로부터 義務敎育年限延長에對하야 反對하엿슬뿐더러 義務敎育年限延長에關한 文相의 方針說明을 要求하엿슴으로 來十五日午後二時부터 黨本部에서 開催될 政務調査會에 出席하야 現下의 諸情勢로보아 義務敎育年限延長이 如何히 必要한 特히 從來의 歷史的實情으로 보드라도 財政關係만에 拘泥하게되면 將來 몃十年後에라도 解決하기 不可能하다는 旨를 說明하야 年限延長에 不拘하고 此를 斷行하고 또 靑年敎育은 義務敎育 八年우에서 靑年學校를 適齡까지 延長하야 共普及徹底를 圖하려한다는 旨를 述하야 政友會의 諒解를 求하기로되엿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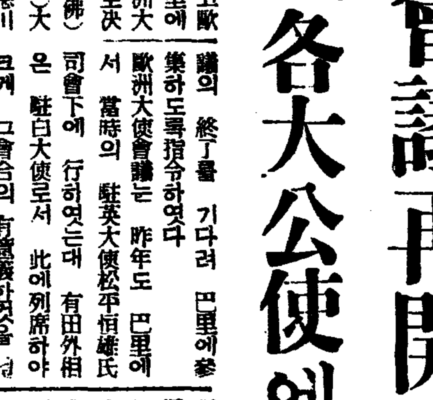
土耳其代表宣言 列國代表에衝激

【몬트로十三日發同盟】再開劈頭의 몬트로會議에잇서서 土耳其代表아라스外相은 新條約으로부터 非加盟國의除外를 要求하는强硬宣言을 發表하야 各國代表間에 大衝動을 興하엿는데 아라스外相은 會議終了後 新聞記者團의 質問에對하야 土耳其政府의宣言은 伊太利의會議不參加에 對抗할 意味로한것은아니라는 旨를言明하엿다 但 英國이地中海艦隊를 撤收한結果 地中海에잇서서 伊太利의 勢力이 增大되여 土耳其領海는 重大脅威를 밧게될것은 明白한 事實이다 土耳其는어데까지 新條約에 伊太利의參加를 希望하는立場에서 今回의要求도 牽制的意向에서 나온것은아니라고 생각한다 十三日의會議結果 新條約의成立如何는 마침내 最近數日中에 決定될形勢가 濃厚하게되엿다

多額的繰入은 外地產業發展阻害
特別會計의 一般會計繰入에
外地當局은反對意向

【東京電話同盟】大藏當局은 財源捻出次 拓務省에 明年度豫算에 對하야 朝鮮、臺灣、南洋、樺太의 各外地特別會計로부터 一般會計에 繰入又는 南洋特別會計의 出港稅를 一般會計에編入하야 적어도一千萬圓을不下하는 金額의繰入을要求한데對하야 拓務省에서는 右主旨를 各外地長官에게 通牒하고 그意向을 徵하엿던바 各外地長官으로 어느 程度의 繰替使用은 不得已하나 多額의 繰入에는 絕對反對인 旨의 返電이 到着하엿다 따라서 永田拓相은 右外地의 意向을 尊重하야 今後馬場藏相과의 間에 繰入額을 最少限度로하려고 政治的折衝을 開始하기로되엿다 卽拓務省으로서는 中央政府側이 主張하는 各外地가 煙草、郵便料金値上等의 增收計畫을 實行하면 一千萬圓假量은別로困難한事는 업다는데對하야 拓務省側에서는 一般會計가 財政難에苦惱하는此際各外地에對하야 相當한 援助를期待하는 大藏當局의 要求는 諒解하나 一般會計와 特別會計와의調整上 一年度에限하야 繰替使用에는 援助를不惜하나 一般外地의 實情은 그生產額은 一戶當에잇서서나 또는 一人當에잇서서나 日本內地의 四分之一、二分之一에 不過하야 그負擔額은 富源에比하야 過重한듯시보이나 그收入額의生產額은 亦是그에 比例하야 適은故로 日本內地同樣의 增稅는 到底히 實行할수 업슬뿐아니라 外地의 各施設은 日本內地에 比하야 非常히 떠러지므로 大藏省側의 要求와 가튼多額의 繰入은 外地產業發展을 阻害하는것이며 萬若이것이 恒久化하거나 或은巨額에 達할時는外地를本土에서 搾取하는것이 되여 日本의 外地統治方針에 根本的...

歐洲情勢急迫으로 駐歐大使會議再開
外相、各大公使에訓電


(寫眞은 有田外相)

【東京電話同盟】歐洲一般政情의 切迫에鑑하야 有田外相은 日本不一 [illegible] 動의方針을樹立하려고歐洲各駐箚大使를 巴里에 會合식혀第二回 歐洲大使會議를 召集하기로決定하고 十四日佐藤(佛) 武者小路(獨)吉田(英)天田(蘇) 杉村(伊) 德川(土)來栖(白)各大使及特히 國際會議日本事務局長 堀田瑞西公使에 訓電하야 몬트르會議의 終了를 기다려 巴里에參集하도록指令하엿다 歐洲大使會議는 昨年도 巴里에서 當時의 駐英大使松平恒雄氏 司會下에 行하엿는대 有田外相은 駐白大使로서 此에列席하야 크게 그會合의 有意義한것을 體得하여스므로 今年다시 此를召集하야 大戰前의 形勢에 酷似한 歐洲各國의 情勢에 關하야 現地各方面의 意見을 綜合하야 近近 歸朝하는 佐藤、大田兩公使로하여금 詳細히 復命식혀 日本의對歐洲政策 就中對英對蘇對獨方針의 確立에 資할 重要指針을 어드려는것으로 이巴里大使會議의 動向에는內外의 注目이集中되여잇다

白、英佛兩國에 로會議延期를要請

【부랏셀十三日發同盟】로카르노條約國會議는 來十七日前後 白耳義首相반·젤랑氏司會下에 부랏셀에서 開催될려이엿든바 白耳義政府는 十二日突然 英佛兩國政府에對하야 會議延期에 對하야 折衝을開始하엿다 右理由로서 伊政府의 不參加및 獨墺協定成立에 伴한 情勢의 變化를 들고 會議의 招請을 委託바든 白耳義政府로서는 英佛兩國政府가 伊太利의參加업서도 英佛白三國會議開催를決意하면 別問題이나 萬若依然伊太利를加하야 四國會議를主張하면 爲先會議開催를延期함을 可하다고하는 旨를 提議하엿다고 한다

白、英、佛提携强化 新獨墺協定에

【부랏셀十三日發同盟】獨墺新協定締結은 白耳義政府에 적지안흔 衝擊을 與하얏는바 消息通은 左와如히 白耳義政府今後의 外交政策은 英佛提携强化에잇다고 보고잇다

獨墺新協定은 墺國以外地域에 獨逸의 自由行動을 許容할危險性을 含한것이다 더욱今次 新協定에 依하야 스트레자戰線은 드듸여 消滅되는데 이르럿다 白耳義政府로서는 最近 獨逸과 諒解達成을 企圖하얏는데이러한 情勢가된以上 今後는 英佛兩國과의 提携强化에 邁進하게될것이라 하다

復辟問題反對와 墺國國防軍强化
獨墺新協定의附隨機密條項要旨

【維也納十三日發同盟】獨墺兩國政府는目下의 正常化를 名目으로 新協定을 締結하엿는데發表된 簡單한 公文以外新協定에는『機密附屬書』『機密條項』이 隨伴되엿다고 傳한다 또事實上 王家의 復辟을 阻止하는 同時에 墺國政府의 國軍强化工作에 獨逸이 協力할것을 公約하엿다고傳한다 一方 무首相은 新協定締結에伴한 代償으로 히總統에墺國의『獨立保全』을 公約식히고 부레넬峠一帶의 軍備를緩和하게되엿는대 他方히總統에對하야는 로카르노會議 其他 國際會議에 獨逸政府를 招請하도록 主張함을 暗默裡에約束한것으로 解釋된다 따라서 獨墺伊三國間의 關係는新協定에依하야 크게 緊密化하게되엿는데三國合作策을 骨子로한 獨墺兩國間의 密約要旨는 如左하다

▲機密條項
一、墺太利政府는 獨逸人旅客에 對하야 從來의 煩雜한旅券査證手續을 撤廢함

▲機密附屬書
一、墺政府는 나치스黨旗를 一般他國 國旗同樣으로 取扱함
一、墺太利政府는 國軍을 强化하야 三十萬에 擴充 適當한裝備를加함
一、獨墺兩國政府는 합스부룩王家復辟으로서 當面問題가 아니라고 看做함

維也納駐剳、獨逸大使館高官도十三日夜以上『機密條項』의 存在를 確認하엿는대『機密附屬書』에 關하야는 全的으로 否定하엿다고 傳한다 獨逸公使파ㅣ펜氏는 新協定遂行의 使命을지고 依然暫時間 維也納에 滯在할豫定으로 보인다

埃及對伊制裁撤回

【카이로十三日發同盟】埃及政府는 制裁調整委員會決定에 基하야 伊政府에 對한 制裁를撤回하기로 決定、議會의協贊을 求하엿던바 埃及議會는 十三日右制裁撤回를可決하얏다

夕刊後市況 十四日

◆東京短期◆

	後引	高値	低値
東新	一三五七	一三六〇〇	一三五〇〇
日產	七八四	七八〇	七七〇

◆大阪短期 氣配◆

大新	七四五〇	(二〇高)
延新	一五九五〇	(二〇高)
日產	七八五〇	(五〇高)
東新	一三五七〇	(一〇高)

◆橫濱 生糸 後引◆
當限 七五八〇〇 先限 七五〇〇〇

◆福井 人絹 後引◆
當限 大二四〇 先限 五九九

第1回 全朝鮮學生美術展覽會

本社는 創立以來로 우리文化向上을爲해서 여러方面으로 가진誠力을다해왓스며 또한아프로도 그리하려는바이다。

그러나 우리文化가 항상더노픈水準으로向해서 끗업시 發展을하는데는 우리社會의未來의 礎石이되는 初中等學校學生諸君의文化的向上을 奬勵하지아니하면 안되겟슴으로 이에 本社에서는 全朝鮮 初中等學生美術展覽會를 開催하는바이다。이것은 昨年가을에 本社가主催한 全朝鮮男女音樂『콩쿨』과함께 多角的인 우리文化堵을 싸어올리는데 잇서서 오로지 本社의獻身的인 巨大한企劃인지라 諸君의絢爛한 天分도 이에서 修練될것이니 이兩大姉妹的 事業은 오직 諸君에게만 開放된文化의獨壇場이다。

모히라! 그대들의 學園과가티!
보내라! 그대들의 조흔作品을!

그리고 이와가티 巨大한事業은 主催者인 本社의獨力에만依하야 完美한結果를 거둘者아니오、여기에는 반드시敎育當事者諸氏의 深切한理解와 多大한協助를 要하는바이니、여러한意味에서 우리는 學校當局과 敎育家諸氏의 協力을 企望하야 마지안는바이다。

會期 自九月二十日―至三十日
場所 本社大講堂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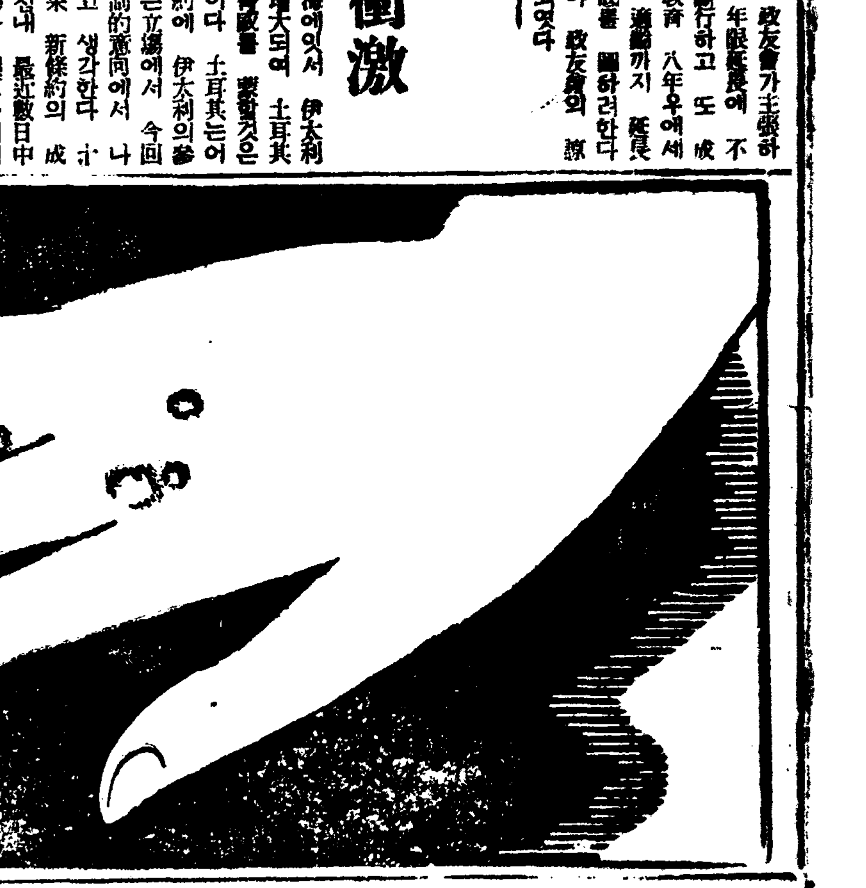
出品種別
中等部
東洋畫科(四君子畫도包含함)
西洋畫科
工藝科
A、彫刻、工藝品
B、刺繡、編物
初等部
自由畫科
手工科

褒賞
入選作中에서左記二級의入賞作을選拔하야各各如左한正賞과副賞을授與함(以外의入選者에게對하야는全部記念牌를進呈함)
(中等部)
特選賞 各科若干人 各(正賞 賞牌 副賞 五十圓)
優選賞 各科若干人 各(正賞 賞狀 副賞 三十圓)
(初等部)
特選賞 各科若干人 各(正賞 賞牌 副賞 二十圓)
優選賞 各科若干人 各(正賞 賞狀 副賞 十圓)
一、特別褒賞【本社長賞】一人百圓
右記特選作品中에서 가장優秀하다고 認하는作品에對해서는 本社長으로부터 特選賞에兼하야 特히 社長賞百圓을授與함

一、申請及搬入場所 一、本社庶務部 二、平壤、大邱、咸興、全州各本社支局
一、申請期日 自八月十五日至九月十二日
一、搬入期日 自八月十三日至九月十五日(但前記支局을通하야搬入할時는九月十四日까지)
一、出品規定 本社所定申請書를請求하야 指定欄에 各項을明細記入하며 作品背面에도 申請書에記入한바와가티 作品題號及作者氏名、住所所屬學校學年別及 年齡等을明記하야 本社又는地方事務所로搬入하시오(詳細規定은葉書로問議하시오)

主催 朝鮮日報社

근질근질 痒한 皮膚病에 アスタム (아 스 람)
무좀、버짐、태독、쇠버짐、濕疹、음낭습진、백납、옴、땀띠、진무른데
深達性 殺菌力强하고 爽快하게가려운것을 除去하며、深部의 皮下菌도 殺滅하며、分泌을막고、患部를乾燥식히며 더욱히絕對로 刺戟안주고 가려운症을 막고、治療를 速히하는 幼兒에도安全하며 여름의 頑固한 무좀、음낭습진、땀띠、에는 理想的이다。
無刺戟性强殺菌劑
刺戟性의 물약과는 判異하야 安全하고 效力이오래고 크림狀으로 皮下菌까지 죽이는特色!
藥價 三十五錢、一圓 츄ㅣ부入 五十錢 全國藥店에잇슴
大阪·東京 發賣 丹平商會



東方山彙의主宗 白頭聖嶽을瞻謁
博物學界의權威를總網羅 科學的踏査를決行
本社主催白頭山探險計畫

백두산은 해발 구천오백 오십이척 동방산휘(山彙)의 종주(宗主)가되는산인동시에 조선민족으로잇서서는 력사가잇기 전부터민족적신앙의 큰대상이되여온 조선은물론 동방의진산(鎭山)이다 조선사람으로 누가한번 그거룩한풍모를 절해뵈옵고저 아니할자잇겟스며 이땅에발을 붓친자로 누가한번 그부드러운·품속에안기고 십지안흔자 잇스리오마는 이곳은 세상이다아는바와가티 변경에떠러저잇는 조선의 북쪽끗인동시에 수배리 인적이 떠러진 험란한지역이자 지대가 국경지대이고보니 소란하기가 짝이업서 이러저러 좀처럼등산계획은 생심을못하게되고 간혹등산하는자가 잇다면 근방에 주둔하고잇는 군대들의 행군연습에 참가하야 가기는하나 갑작이하로에 자만한 단체라 준비가서툴뿐 일동일정을 군대규율에따라 행동하게됨으로 일정이 촉박하고 행동에 구속이되여 한평생소원을 허는판에 웅대한 풍광을 마음껏보지못하고 백두산아니고는 발견할수업는 식물계동물계에잇서 진기한 과학적재로를 한번더듬어 볼사이가업시 이야말로 주마간산(走馬看山)적으로 지나온것이 종래등산자의버릴수업는 유감이 이엇스나

금번본사로서는 이러한 유감을 업세는동시에 우리손 으로서는 맨처음으로 백두산단체탐험을결행함에당하야 이기회를 리용하야 명소에뜻이 잇고도 기회가업서 결행을못하는유지들에게 실비이하의 참가금으로 약이십명한도로 본사탐험단에참가를 공개하얏다 일반참가단원에 잇서서도 본사탐험의목적이 단순히『알피니스트』의 모험려행이아니요 이러사적성지(靈地)를 순례하는 한편으로 과학방면으로보아 일홍록수지대가되여잇는 이고산지대에 동식물계를 물론하고 과학적연구답사를하자는것이 본사탐험계획의 주지임에따라 일반참가단원에잇서서도 유감이나마 이방면연구전문가에게 참가우선권을 드리게되고 정원수에 여유가잇는대로 일반등산가의 참가를허하게되엇다 본계획이 발표되는 속일로 일반단원의 참가는벌서 반수를 돌파하야 금명간에 정원으로 초과할형세임에 따라참가희망자는 시급히 선청함이조흘것이다

生活의不安定을 實證하는犯罪相
半年間에七千二百餘件發生 咸南道內의集計

【咸興】 함남경찰부의 집계한바에의하면 함남도내에서 금번상반기(上半期)에 발생한범죄총발생건수는 형법특별범합하야 칠천이백칠십륙명의 다수에달하다 그중에서 형법범은 오천십륙건이며 그인원은 사천팔백칠십사명의다수이다 그리고그중유괴범중에만 발생한것이팔백구십삼건에 검거건수가팔백십륙건 인원이팔백 사십사명이나된다 그리고 범죄별로보면 절도가 단연제일위로서 이천이백오건 다음이사긔(詐欺)로륙백칠십건 횡령(橫領)이 삼백칠십오건으로 이들생활고로 긔인된 범죄수 륭형법범중의 칠십『파ㅣ센트』나 점령하고 잇는데얼마나 주민들의 생활이 불안정한가를 여실이엿볼수잇다고한다

海水浴場과"캠프"村 學生行動을監視
出張한保導聯盟員이

경기도보도련맹(保導聯盟)에서는 하기휴가중에 인천월미도에 림시출장소를 설치하고 인천부(仁川府)와 인천경찰서와 협력하야 해수욕장과 『캠프』장에서 일반학생 생도의 풍긔를 엄밀히 감시할터이라한다
그러고 안양(安養)뚝섬 한강(漢江)등 각수영장에도 보도련맹원이 출장하야 상당한 감시를 하기로 되엿다한다

술갑대신에 新婦를監禁

【平壤】 개천군북면원리(价川郡北面院里)김찬규(金賛奎)는 덕천군덕천면읍북리(德川郡德川面邑北里)김제선(金濟善)과조화숙(趙和淑)의두사람을상대로 불법행위에의한 손해금이천삼백여원의청구소송을 평양지방법원에 제긔하고 소송중이든바 원고에게백원을 제공하라는판결이 좌등(佐藤)재판장으로부터 나리엇다
사건의 내용은 원고김찬규는 소화구년시월 태천읍내 최옥상(崔玉祥)(一八)과약혼하고 금년이월이십오일 결혼식을 거행하기로되여 원고는 백구십여원을색여 잔채를준비하고 새색시가오기를기다렷스나 새색시최옥상은

도중에서 피고 두명에게 갈롬을당하고 네의남편될사람인숙술 갑기까지는 절대로시집볼가지못하도록 너를미다둔다고하여 착채를 목소반을만드럿든사실이라한다

土地測量標令 十五日부터施行

참모본부 륙지측량부의 조선내삼각측량실시와가터 다년간실현한철과에 의하야 제정된 조선토지측량표령(標令)은 금훈이월륙일 제령제일호로 공포되여 총독부에서는 이시행규측의 립안을 급급히하며 시행준비를하고 잇는중이당십오일부터시행하게되엿다 동령시행의 요점을 따서쓰면 다음과갓다
一、본령적용범위의 확장
二、측량할때에는 미리고시를할것
三、『리인(吏人)』에 관한 등의 또는 표석(標石)표항(標杭)설치제한지의 설정
四、측량에 종사하는관리는등표를 휴대할것
五、표석을 세우는땅은 이를 수용할것
六、표항세울땅에 대하여는제지료를 지불할것

赤色勞組再建事件 十五日公判續行
午前九時부터活動事實審理

夕刊續報=박영출등열명에관한치안유지법위반사건공판은 십사일오후한시오십분부터속행되야박영출에대한사실심리가계속되엿는데 피고는학교내에손을빼처 학생운동을일으키는동시에 학생층에××주의사상을 선전하려고하지안엇는가하는 재판장의질문에하야 박영출은 증거물로 압수된 일배칠십일개조(個條)로된 학교내의 활동긔준(活動基準)이라는 것을자세히설명하야 조선의현재교육제도는 민족문화의발전을위함은 하나도업고 다만 일본내지자본가의 충복(忠僕)이될교육을식히고잇슴에 불과함으로 학생은 학문을연구하는동시에 학교내의자치(自治)를요구하고 나가서는 학문연구의자유및언론, 집회, 조직의자유를어더야 조선고유의 민족문화를 발전식힐수잇다는 신념을가지게되야 리재유에게이것을 이야기한것이다 그러면 이활동긔준대로 피고는 활동실현하라하엿는 가하고 질문하매 피고는물론 그것을 실천할수잇스면 실천하려고 생각하엿다고 명백히대답하엿다 이리하야 피고는 대체로 자긔는 조선의××화를 목적한것이 아니라××의××를 ×××자면조선민족의 문화발전을 위하야차워야한다는 신념하에 활동하엿다고 명언하엿다
박영출의 뒤를이어 리인행(李仁行)의 심리에 들어갓는데리인행은 전연사실을 부인하다 십오일오전아홉시에 공판을 속행하기로하고 오후네시이십오분 폐정하엿다

太平橋農場紛爭의 勝利는權力에로
百餘農民死線에直面

【新京】 태평교농장농민수리분쟁사건으로 사람까지 죽게되야 세상의 이목을 끌고잇는것은 이미루차 보도한바어니와 그간농민의 단합으로나경울 싸워공자를 빼여 지금조종을 예기하고 잇스나 당국의 무관심한 처리로 농자대부를 엇지못하여집을 매지못하고,백여농민이 아사지경에 이르러 지난십일농민대표는 신경각사회단체에 다시 억울한 사정과 김만매게하여달라는 애원서를 배부하고잇다한다

妓生家에染病

옥정(旭町)일정목 일백이십오번지방서가(芳德家)의 예긔로잇는 곡촌귀자(谷村貴子)(三〇)는 십사일오전열한시 장질부사로 진단되여 화원정(花園町)산구병원(山口病院)에 입원치료중이라한다

浪說퍼치고 金品多數詐欺

십사일 시내종로서(鍾路署)사법계에서는 시내재동정(齋洞町)일백삼십칠번지의 임태삼(林泰三)이 물고잇는 한국향(韓菊香)(二四)이라는 여자를 붓잡엇다가 방금 사긔협의로 엄중취조중인데 그여자는 약한달전에 개성(開城)으로부터 상경하야 경성내외를 떠돌아다니면서 금변이 병자의녀이나 당신아들이 죽을수가들엇다는등의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여가며 관상(觀相)을 본다니 긔도를 들이느니하야 수십명에게다수의 금품을사취해 먹은것이라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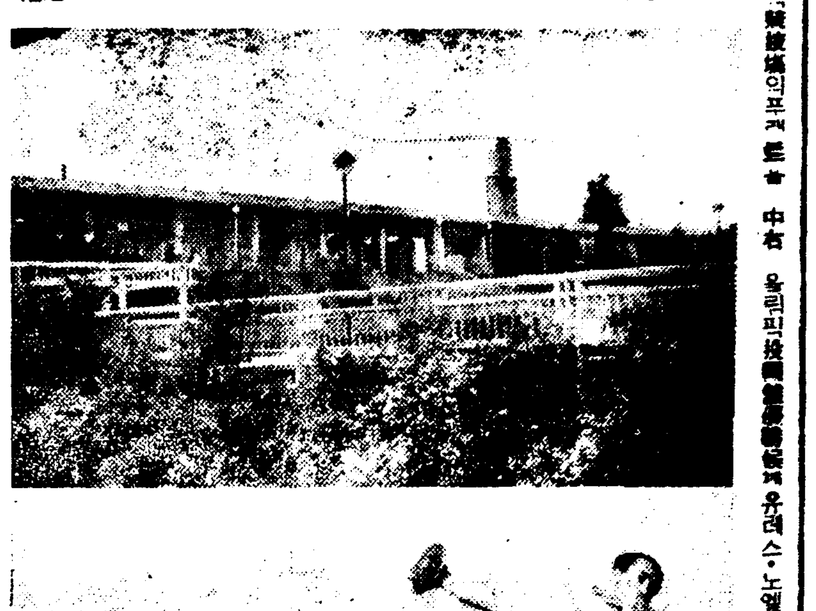
自動車事故 急進的激增

【咸興】 지난일월부터 유월말일까지의 반개년간 함남도에서 일어난 자동차사상사고는 삼십구건으로 그피해인원은 륙십명인데 그중죽은사람이일곱명 부상한사람이 오십삼명이다
그래할남도는 각중에공창이 족출하야 금각도로 공장지대화하고잇슴으로 이에따라 자동차수는 비상히늘고잇는동시에 자동차관게사고가 급진적으로 늘고잇스니 소화이년도에는 발생십칠명에 사상자이십명이든것이 오년울 지낸 소화륙년도에 와서는 이십사건에 삼십이명이나 늘엇다 그리고 다시십개년울 지낸 작년중에는 일약칠배나되는 일백십오건에 구십오명의 만흔사상자를내엇다
이러케 격증하는원인은 위선자동차의 격증이라고 하겟스나또한장재적으로 중대한 원인으로 운전수의 과로(過勞)가 원인되여잇다고하는데당여자들의 이에대한고려를 요하여야하겟다고한다

석골少年을부뜰고 豹變假刑事노릇
身體를檢査後現金强奪

십사일오후여덜시경에 시내 당주정(唐珠町)십오번지 적선려관에묵고잇는 충청북도 진천(鎭川邑)에서올라온 문필수(文弼洙)(一七)라는 석골소년이 『파고다』공원압헤서 전차를 내리는때에 삼십가량된 양복입은 남자가나타나서 자긔는동대문서(東大門署)형사인데 잠간조사할일이 잇스니 따라오라고하야 공원뒤에 데리고가서 로상에서 신체검사를시작하야 전긔소년이 가지고잇던 현금이원십이전을 빼서가지고 그곳에 소년을 잠간기다리라고한후 그대로도망하여버렷는데 소관종로서에서는 방금범인을 엄탐중이다

伯林올림픽畫報
④ 獨逸交通中部鐵路總局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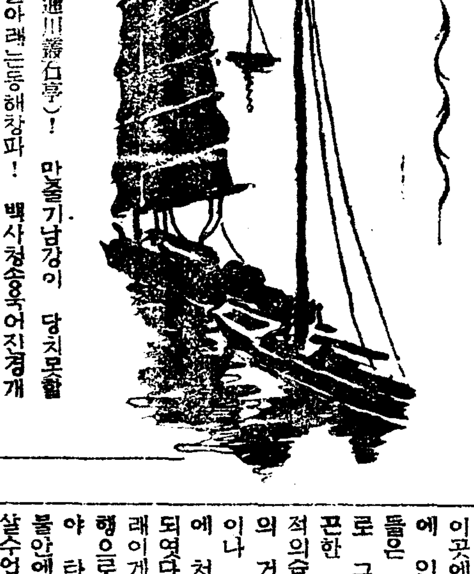


上은 옥텔「競技場의프레」 中右 올림픽投擲選手 유레스·노엘君(佛) 中左走高跳選手 스타프·바인코츠君(獨) 下는 올림픽村의 一部

奉天攬軍屯同胞村 百餘戶撤去命令
六百餘住民蹶起、對策을講究 奉天工業土地公司處事

【奉天】 봉천시(奉天市)에서 약십리가량 떠려저잇는 철서람군둔(鐵西攬軍屯)이란곳은 만주국성립후에 공업지대로 되엿는데 이곳에우리동포가 일백삼십여호에 인구륙백명이 살고잇다 그들은 전부 공장의일용 로동자로 그날그날의 생활이 아조빈끈한 상태이다 그런가운데 마적의습격이 빈번하야 조선사람의 거주하기에는 불리하게되곳이나 집세가 헐합으로 생활난에 처한동포가 만히몰리여살게되엿다 한동안세상의 이목을놀래이게한 만인(滿人)경관의 폭행으로 봉천총령사관에 살도하야 탄원을 하는등 전전긍긍의 불안에 싸혀 하르도 마음노코 살수업서 항상 초조한가운데사려가는그들에게 이즘에는 또다시 눈물겨운 어려운문제가 눈압헤 당도하엿다 철서람군둔은 지난일일부터 외법권의일부분이철폐되는동시에 봉천시에 편입되여 공업지대로 지명되엿슴으로 일본내지와 조선으로 부터 진출하는 대재벌의 공장을이곳에설립키위하야 이토지의 소유자인봉천공업토지고분유한공사(奉天工業土地股份有限公司)로부터 주민전부에게 오는 삼십일일까지에 가옥을철거하라는 명령이나리엇다는바 적수공권의 륙백동포는 유일한 생명선인 가옥을일코갈바를아지못할 비참한처지를면치못하리라는데 주민일동은 지난사일에 봉천총령사관 경찰서에 탄원서를 제출하는동시에당지더리양행(德利洋行)사무소에는 주민 대표들이 모혀서 대책을 강구하는중이라는데 대표자는 일본내지인이 두사람이고조선사람측으로 리인실、남룡운、강대철(李任實、南龍雲、姜大喆)등제씨라고한다

西北 中部 三南 凉味放送 對抗戰 ②



총석루(叢石樓)이야기는 듯기만해도 등에땀이흘르거든! 어린애 오줌줄기마침 흘러가는 남강(南江)둑에 몬지가 캐캐싸인 석벽을의지 하고 다어떠질듯이서잇는 고색창연한그루각이 무엇이 그리 석원할런지모를일。 열대지방을 련상식히는 강건너대수풀! 경치는 어떨런지모르나 석원피는 당웅산동경。 서장대 가 아폴가로막는다니 (숨이나안막하면 다행일가? 의기(義妓) 론개(論介)의 충절(忠節)이야기、삼장사의 영웅담들은 피가끌코 살이뛰고 적성(赤誠)과 열혈(熱血)이 비저낸사실(史實)! 듯는자로 하여곰 가슴을 끌로록하니석원한이야기로는 첨부당 만부당。
여게는 관동팔경의하나인 통천총석정(通川叢石亭)! 만줄기남강이 당치못할 발아래는동해창파! 백사청송우어진경개에 겨누면 총죽장림(叢竹長林)은 어린애소꿉질。 백척절벽으로 각가세운 옥병풍은 돌로보기는 악가운조화! 아마하드라도 치를떨려던데 북해의흑조(黑潮)를 타고내려오는 한류(寒流)가 이절벽아래와 부다치고 도라설때백진주를 뿌리는듯、눈사래기를품는듯한 장관을 대할때야 석한사람이라도 오한(惡寒)이날것을!
석양해풍으로 배를불리고 조으는듯한 고깃배는 떠워고 치위를 멀리 초월한 나도업고 남도업는 꿈나라정경!
이땅의 사전(辭典)에는 떠워라는 말은차즐수업스니 남강가에서 땀흘리는 축석루는 이곳에와서피서를할일

中部應答=江原道通川叢石亭
三南(慶尙、全羅、忠淸六道) 中部(京畿、江原兩道) 西北(平安、黃海、咸鏡五道)

올림픽籠球代表 獨逸代表를粉碎
廉殷鉉、李性求、張利鎭君의猛躍 六十九對六의大差로

【伯林十二日發聯】 올림픽大會가 臨迫함을따라 連日前哨戰이열리고잇슨데 十二日午前十時半부터 日本籠球代表는 올림픽練習競技場에서 獨逸代表팀과 첫試合을 行한바 前半39…2、後半30…4로結局六十九對六으로大勝하얏다
이날立錐의餘地업시 雲集한獨逸의觀衆은 廉殷鉉、李性求、張利鎭外諸選手의 妙技에感嘆하야 拍手소래가끗칠줄을모르엇다 身長과技術에잇서서도 獨然한差를보이여 獨逸代表팀은 問題업시慘敗하엿다

東京留學生 庭球團入京

東京留學生으로 組織된 友庭球團은 昨十四日午前…京城驛着列車로入京하엿는데 今十五日午後四時부터 京城運動場『코ー트』에서 普專軍과 入京第一次戰을行하기로되엿다
留學生軍의멤버는다음과갓다
崔灦洙 柳海朝 李圭雄 崔炳宙 金善周 金沃周 金珍泰 鄭輝斗 裵伍俊 李先徹

全滿都市對抗蹴球 間島朝鮮人팀優勝

【新京】 第二回全滿都市對抗蹴球戰은 豫定과가티 지난十一、十二兩日西公園運動場에서 開催한바 參加한間島 奉天 哈爾賓 新京等四都市中에서 間島代表朝鮮人팀이 連二年優勝하엿다

올림픽委員會消息

【헬싱키十三日發同盟特派員】 올림픽東京招致의 可否를 決定할 國際올림픽委員會總會는 來二十九日伯林大學大會議室에서 行할 開會式으로 始作되여三十日最後의 決定을보게될터인데 決定의열쇠를쥐인 各國올림픽委員總會出席者中에는 十三日까지 申込을 終了한者가 五十名이요 十五名은 申込手續을 마치지못하엿슴으로 結局總數는 五十名內外일것이다

芬蘭을壓倒하고 日本四百繼走優勝

【헬싱키十三日同盟特派員發】 芬蘭陸上選手權大會及 올림픽最終後選第二日은 十三日헬싱키에서 擧行한바 第一日에比하야 二日은不振하엿스나 이날日本四百米繼走팀은 (吉岡、佐佐木、谷口、鈴木)芬蘭과對戰하야 四十一秒五의 日本記錄新記錄으로 優勝하엿다
▲四百米繼走 1日本(吉岡、佐佐木、谷口、鈴木)四十一秒四(日本新記錄) 2芬蘭四十一秒九

米國陸上六十六名
마라손에뿌라운君出場

【紐育十二日同盟發】 올림픽米國男子陸上代表軍은 十一、二兩日間『란드ー르스』島에서 擧行한最終豫選의結果 六十六名으로 決定하엿다 그리고 『로ー손·로바ー트손』氏를 『헤드·코ー취』로 十五日 『뉴ー욕』解纜의 올림픽號 『만핫탄』號로 征途에오르게되엿스며 우리들의 關心을 이끄는 마라손出場選手는 다음과가티 決定되엿다
▲1、에리손·뿌라운(로ー드아이란드) (二時間三十三分四○秒八) ▲2、웰리암·마크마혼(마사추셋스) ▲3 쪼니ー·케리(보스톤)

留學生庭球惜敗

【大邱】 全大邱軍對東京留學生庭球軍歡迎試合은 十三日午後四時부터 大邱三笠町코ー트에서擧行된바 留學生軍練習不足과遠路의疲勞로因하야 善鬪하엿스나 結局敗戰하엿다

今日의運動

▲庭球=東京留學生白友庭球團對普專對抗戰 午後四時 京城運動場코ー트
▲蹴球=東京留學生對京城OB團對抗蹴球戰 午後五時 京城運動場(入場料 一般廿錢、學生十錢)

淋疾藥 (림질약)

淋疾患者에 어더한藥이 第一조흔가?

이것은內務省大臣을會長으로하고、醫藥學界의最高權威者十六名을委員으로하야審議한後그品位를決定하야、日本藥局方에收載하고、또內務省衛生試驗所에서檢査封緘한藥劑가我國醫學界의指針이되야잇슴으로
本社의淋疾藥은、政府指定醫藥界의最高權威者가選定한日本藥局方收載
그리고 內務省衛生試驗所封緘의治淋劑六劑을主藥으로하고何等副作用이업도록配劑한公認治淋劑다
淋疾患者는賣藥所에여러가지의誇告에迷惑치말고 곳有田도라구로申込하라

淋疾藥 特製(八日分)四圓 別製(八日分)八圓 德用(十六日分)十五圓

梅毒

本社創劑의 梅毒藥은 政府制定日本藥局方驅梅劑三種과 皇漢藥數種을主藥으로하야 副作用이絶對업는 出願許可濟公認梅劑로서 과조의감창、개래톳의 치료는물론、제이긔전신매독、장복매독、유전매독、매독성루마지스등도본제의내복으로 곳 배독작용(排毒作用)을하며、매독으로 일어나는 불쾌증과 국부와 전신봉이 점점회박하여저서 치병의목적을달할수잇다。 무서운 매독을 손에게 유전치안도록 하로라도 빨리본사의 구매제(驅梅劑)자용하야 고치시라。

藥價 特製(十七日分)六圓 別製(十七日分)八圓 德用(三十日分)十四圓

有田ドラッグ 高價藥劑公開

有田ドラッグ專賣所々在地
京城鍾路局前 有田도라구
龍山練兵町 有田도라구
平壤本町 有田도라구
釜山幸町 有田도라구
群山驛前通 有田도라구
全州高砂町 有田도라구
光州本町 有田도라구
木浦榮町 有田도라구
大邱弓町 有田도라구
馬山京町 有田도라구
麗水港 有田도라구
浦項本町 有田도라구
兼二浦本町 有田도라구
鎭南浦漢里 有田도라구
海州南本町 有田도라구
新義州櫻町 有田도라구
元山本町 有田도라구
咸興本町 有田도라구
羅南生駒町 有田도라구

肺病 肋膜炎 肺炎가다루 藥

本社에서 發表한肺病肋膜炎의全快者는어느거나左記에公開한 高價配劑의別製治肺劑와有田血液藥을服用하면서 一方으로 올바른療養으로實際에全快되도록하는것으로서住所氏名을明記하고全快後의健康體가되는實際까지 公表한것으로서正確하고도信用할수가잇다。
有田別製治肺劑는 歐米는勿論、我國醫藥界의最高權威者들에게서選定된日本藥局方治肺劑와多數高價藥等二十二種의配合에依하야 綜合的治療效能을 奏顯할여러가지症狀을輕快케하는公認治肺劑이다
現今은當局의取締가甚히嚴重함으로虛僞又는誇大廣告는絶對的으로不許하나左記의高價藥劑公開한것은秋毫도虛僞는업다。

(時價一키로瓦의單價)
結核治療劑 醫藥學界最高權威者選定 政府制定日本藥局方收載 一種 七百四十圓 外二種藥配合
鎭咳袪痰劑 五種藥綜合配劑
結核解熱劑 二種 二百三十圓 一種 三十一圓
强胃强腸劑 醫藥學界最高權威者選定 政府制定日本藥局方收載 四種藥綜合配劑
食慾促進劑 一種 二百六十圓 外二種藥配合
鎭靜劑 一種 五十二圓
消化劑 一種 四十七圓 外一種藥配合
酵母劑 一種 五十圓
滋養强化劑 一種 五十二圓
호르몬劑 二種 千六百圓 一種 千二百圓

本社의藥劑가肺病과 肋膜炎에如何히有效한가를 누구라도곳알게되는것은食慾의增進되고排便의調整、體重의增加、結核菌의解消기침의緩和痰의減退等으로이것을무엇보다도回復期에들엇다는證據임으로放心믿고養生하지안흐면안된다 連服하야藥效가나타나기始作하면 體重이날마다다날마다增加됨으로 놀납어보지라。

特製治肺劑 (八日分)十九圓 德用(十六日分)三十五圓
別製治肺劑 (八日分)[illegible] 德用(十六日分)[illegible]
有田血液藥 四圓

五圓以上의出資가 一圓五十錢式分配

—말성만튼博文寺內信工建築組合— 警察의命令으로遂解散!

작년삼월 시내서사헌정(西四軒町)박문사(博文寺)내에 설립된신공건축조합(信工建築組合)은 당초 변상옥(卞相玉)외 이상인이 발긔인이되여 일반대중의 주택난문제의 해결긔관이라는 간판을걸고 오원내지 오십원의출자로 조합원을 모집하엿든바 조합원 일천삼백오십삼인에 일만오천원이라는·출자금을 어더가지고 집을지여 년부제(年賦制)로각조합원에게 빌여줄 사업계획이엿스나 간부의모호한 태도와이사업에대한 불확실한 예산으로말미암아 사업은 진전안될뿐더러 조합원의 긔대는조각조각깨여저 내분을계속하여 소관본정서에서 해산을명하야 십일일이일 삼일동안 전긔박문사에서청산대회(淸算大會)를 열고조합재산을 전부청산하야 구백팔십명에게 매인당일원 오십전식합일천오백십구원의 배당금을지불하엿슬뿐으로 아즉약사백명에게는 지불못하고 잇다하는데이로말미암아 여전히 내분은계속되리라하며 현사무소는 돈암정(敦岩町)사백오십팔번지에잇다고한다

絕壁에墜落死亡

【開城】부외영남면소흥리(府外嶺南面昭興里)에잇는 상수도(上水道)수원지부근에서 나히약이십오륙세가량되어보히는 젊은 남자한명이 그곳을배회하며 구경하다가 노피 약 이십척되는 석축돌때에서 실족하야 떠러저서 전신에 타박상을당하고 혼수상태에 누워잇는것을 그곳 주민이 발견하는즉시 그동리집에 업어다누이고 소생하기를 기다렷스나 고만그의일오전열시경에 절명하고 말엇다는데 본서에서그신원을 조사중이라한다

流血의"란데부"

男女作伴하야散步中 暴漢에게被襲重傷

【京城】십삼일밤아홉시반경 한강건너 한강신사(漢江神社)아래 숲속에서는 시내 신당정(新堂町)일백륙십이번지에살며 시내××전문학교에 재학중인 신학모(申學模)라학생이 자긔연인인시내모녀학교 재적생 김애라(金愛羅)(假名)란 녀학생과 전긔숲풀로 산보를나왓든바 별안간숩속한여프로부터 젊은청년두명이나타나서 가진욕설을함으로 신학모는 그를참다못하야 대항하엿든바 쌍방에는 육박전이연출되여 전긔신은 얼골에무수한타박상을당하야 위급하게될때 이를여페서보든 애라는 구원해달라는 비명을질러서 때마츰그여프로 소풍나왓든사람들에게 구원을바덧다는데 그는전신에 피투성이가되여 자동차로 자긔집으로가버리엿고 폭한들은그자리에서 종적을감추어버리엿다한다

入試準備爲한 私設講習設置

仁川敎育界喜消息

【仁川】보통학교를 졸업한후상급학교에 입학하려다 불합격되든 아동들은 다시상급학교의 입학준비를하려도 교육긔관이 업서 중도방황하다가 락오자가되는일이 허다함으로 이를유감으로 알든 다년교육게에 종사한 한상렬(韓相烈)씨는 전긔 상급학교에 불합격되든아동들의 교양을 목적으로 인천부우각리(牛角里)오십번지에 사설강습회를 설치하고 당국에인가신청중이든바지난 유월십일에 인가되어 방금 열심교수중이라는데 입학된 아동이 벌서오십명에 달하엿다한다

開城記者俱樂部創立

【開城】개성긔자구락부(記者俱樂部)창립총회는 지난십일일저녁 오후륙시부터 부내천향원(天香園)에서 개최되엿다한다 그런데 이날밤은 동구락부의조직을 위원제로할것과 집행위원장(執行委員長)을 림한선(林漢璿)씨로선정할것을 우선간단하게 형식으로 토의하고 후일다시완전한 규약작성과함께 창립대회가 잇다는바 의원재씨는 다음과갓다한다

▲大東新報 蔣漢琦
▲朝鮮日報 玄東炎
▲東亞日報 金願弘
▲中央日報 盧宗駿
▲京城日報 金俊爾
▲朝鮮新聞 金起元
▲國境每申 曾主台
▲每日申報 李熙增

運動競技

東京留學生 럭비入京 明日普專과對峙

東京留學生럭비團一行十八名은 主將李起鄕君引率下에 十四日午前七時四十五分 京城驛着列車로入京할러이엿스나 이날事情에依하야 午後三時五十分(延着時間)에 元氣旺盛한가운데 京城驛着列車로入京하야 市內黃金町東一旅館에서 旅裝을풀고 一行은하로를 休養하고 十六日午後四時半부터京城運動場에서普成專門軍과對戰하기로되엿다

留學生럭비勝 大邱와의第一戰에

【大邱】東京留學生럭비團對全大邱럭비戰은 十三日午後五時卅五分부터 東雲町公設運動場에서全大邱先蹴으로 開始되바 故國訪問第一次戰에 全大邱軍을 十八對五로 擊退한後 그날밤車로京城으로向發하엿다

留學生18 (13…0 5…5) 5全大邱

【留學生軍】 FW 澤善動 鄕東培 京均 萬漢濟 起基鎭 起主炯 榮甲七 柱殷昌 洪朴高 李曹金 姜李尹 崔李邊 金啓炯 HB TB FB

【全大邱軍】 FW 秀蔡國 島川井 伯均本 得岡植 崎門安 HB TB FB 達俊鎭 河晩龍 徐金金 三小村 佐申山 李今片 濱大德

女子體育딴스 講習會開催

市內大和町四十二番地에잇는 崇新學園에서는 七月廿五日부터廿九日까지(五日間)第一回女子體育딴스講習會를 每日午前八時부터 同學園講堂에서 다음과가튼要項으로 열리이라고한다

一、講習內容 가、初等校用 童謠遊戲、唱歌遊戲及律動遊戲、나、初等校運動會及學藝會用遊戲 라、初等校教材(低級學年用)手工法

一、講師는 京城中央保育敎員催世恩氏、朝鮮體育研究會 主事金保榮氏

一、講習會費 一圓五十錢 (體育敎材印刷物進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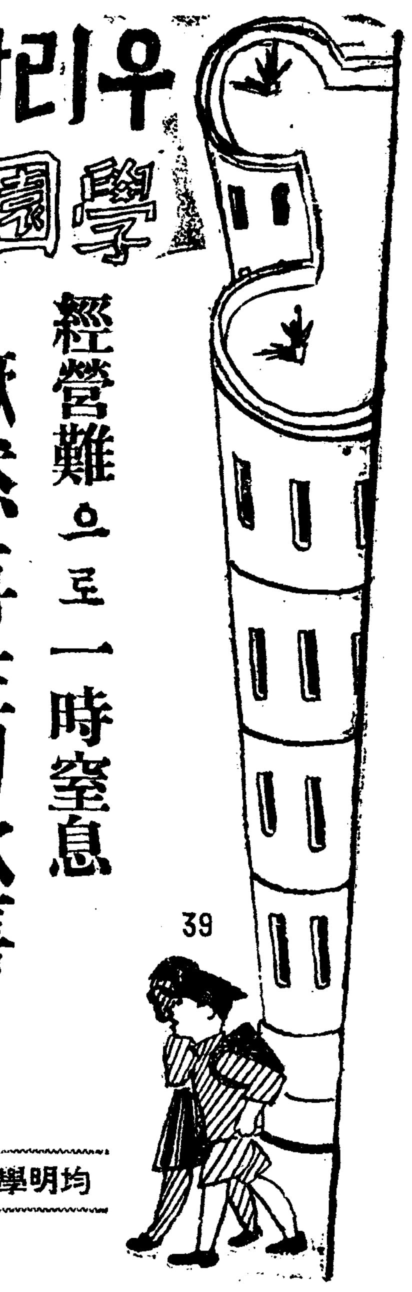
一、講習會員定數三十名限

一、會員資格 初等學校女敎員及將來敎員을希望하는女子에限함

一、申請方法 志願者는 申請書에會費를 添付하야 七月廿四日午後七時까지 水標町崇新學園事務室에 提出하고 會員證을 바들것

昨日 入京한 東京留學生 럭비團一行

우리아들딸 學園돌이



均明學校篇

經營難으로一時窒息 蹶然再生의歡喜

—七轉八起經營者들의苦心— 狹舍는勤勞階級表象

칠월의 작열한 태양이 거리의페ー브멘트를 일제사격하고 잇는날 더위와싸우면서 봉래정(蓬萊町)막바지를 차저갓다 이마에는 구슬아닌땀방울이 흐른다 양복저고리를 버서들고 돌땅을 하나식 하나식 헤면서 산등으로 올너가니 일진청풍!그시원한 바람과함께 어린아이들의 명랑한코ー라스가들여온다 바람이 가저오는『멜로듸ー』!마루턱에 다다르자 균명(均明)의 간소(簡素)한 보금자리가 보인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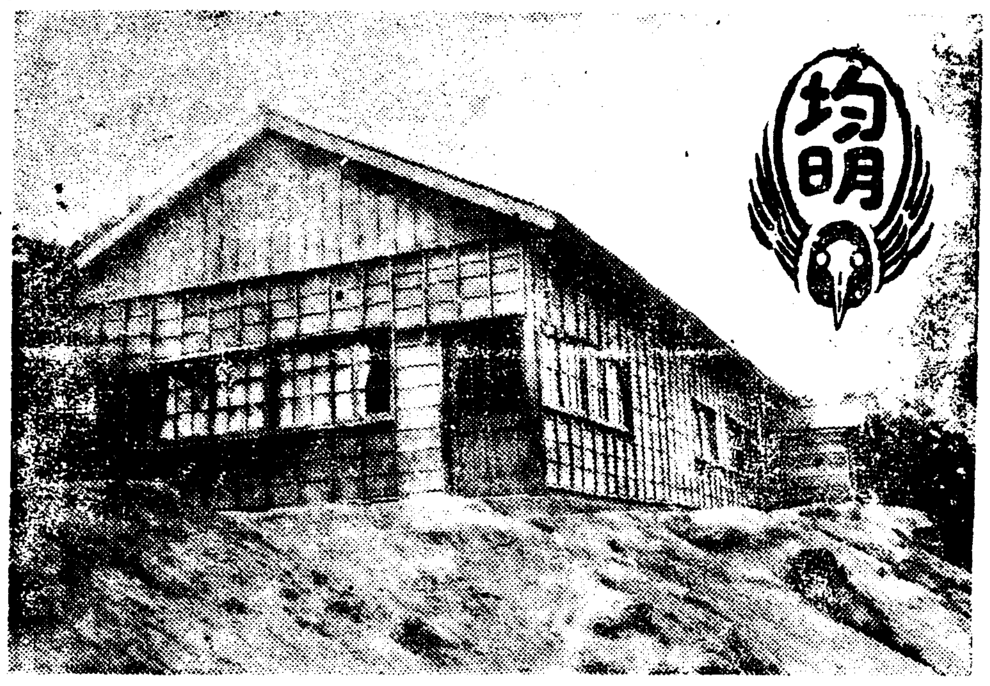
명치사십이년! 산업문화건설을 재축하는 평연한 산호소리와함께 우리 균명학교(均明學校)는 봉래정골목에 첫우름소리를 내엿다고한다 백절불굴하는 로력과 장구한 력사가 비저내인 균명학교는 그처롬 발전에잇서서는 그리 순탄치를 못햇든것이다。 당시의 유지 홍종억(洪鍾億)주인식(朱寅植) 김익배(金益培)외 제씨의 물질적공헌과 정신적로력으로 가튼해 구월일일 시업의 첫종소리를 울리게되엿스니 개교한 당시에는 사、오십명의 어린자제들을 한마당에 모아노코 처음으로 그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기 시작하엿다。학교를 떠메고 나가는 선각자들은 해를거듭함에 따라악전고투를하는중에 중대한란관을 맛나게되엿스니 이는 어떤사립학교이고어느때든지 한번식만나게되는재정곤난으로 생기는경영난이다 전과 설립자제씨의 최후의 돌격도수포로 한때는 그만폐교의 운명에 직면하게되엿다한다 건설의 역사가 패부의역사로 명암(明暗)이 희전되는순간에 메별(袂別)의 눈물과 함께 우리교육게의 적다고할수업는 보금자리균명은 그만되장을하고마럿다

×

그러나 비록문을 닷은 교육기관으로서의 폐허(廢墟)는 은근히 재생의 움을가질한채 한때 기픈잠이들게된것이다 빈약하나마 빗난 족적(足跡)을 남긴우리교육게의 역군들이 남겨둔비참한 잔해(殘骸)는 비오는날눈오는날을 헤아리지안코 새로운『메시야』를 기다리고 잇섯다 때는 소화오년 팔월달 이다 그 근방 청년유지 제씨는 균명의 『감불』적 역할을 맛고 힘찬 소리와함께 이러섯다。김영순(金永淳) 김진호(金鎭浩) 김정렬(金貞烈)외 제씨가 바로 제이대의 개척자들이다。만리현(萬里峴)교회당을 중심삼은 그들청년제씨의 활동으로 갱생의 길을 밟게된 균명은 가튼해 팔월이십일 현재의 교재에서 새로운 개사식을 거행하엿다。

×

순전한 근로게급(勤勞階級)의 자제를 수용하고 잇는 우리균명학교는 참다운 배움의 터이다 비록 교사는 협잡하고 볼품업는지언정 그빈약한 건물이 비저내이는 그들의 긔풍과 학교정신은 찬연한 근로정신그것이다 빈약한가정에서입부(入賦)를 절약하면서 배우는그들을 하로에십전자리 품파리에서 배움의길로 인도하는그들의부형의 문맹(文盲)은 우리의 손으로 퇴치하려는 선생 모도가 위대한 힘이요 자랑이다 남녀백여명의 졸업생을 갱생이후배양한 균명은 지금 삼백여명의 무산아동을 교양하고잇다 이천만이라는 수자를 자랑하고잇는 이땅의인사로서 무산아동의 완전한배움터 균명의교사를 제공할 용사는업는가 균명의힘찬 발소리를 드를때가멀지안호리라고밋는다



(사진은 교사와 회장)

中元에!

여름도 서원한 이맛과
여름에지지안는滋强力
어린이도어머니도、一家의깁븜

愛의滋強飮料
카루피스 カルピス
權威잇는淸凉王

主成分
骨格을맨드는乳酸칼슘。發育的要素비타민。營養의王
蛋白을占한各種아미ー酸。爽快함과殺菌力잇는乳酸。
活動力을補充하는葡萄糖其他와糖類

販賣所 全鮮百貨店·食料品店·藥店·…

모루히네其他塩類中毒에

福 모나ー루

一朝에治療를그릇처서「모루히네慢性中毒」으로移行하야「모루히네」奪除困難에苦惱하시는분은곳福모나ー루療法에依하야確實하고完全히事業을하면서모루히네類를除去할수잇고速히舊健康體에回復함으로써安心하고應用하기를切望하는바입니다

(文献贈呈)

定價 皮下 5管入 10管入 20管入 50管入 包(靜脈)

製造元 順天堂醫化學硏究所
發賣元 大阪市東區道修町 田邊五兵衛商店

MONAL FUKU

天下一品! 一家一瓶!

能率은 항상 라이트와 함께平行한다!

ライトインキ (라이트잉키)

チャムピオンインキ本舗 篠崎インキ製造株式會社

大瓶小瓶各種 全國文具店에 잇슴……

2オンス入(スポイト付) 正價30セン

七月十一日부터晝夜 靑春座公演(第一週)
開北千里머나먼길에演劇巡禮를떠낫든靑春座가來京!

李雲芳作 두 안 해 二幕
두안해를둔한남편의마음、그리고한사나히를두녀자가사랑하는三角愛의선율!이선율은人間으로서의必隨되는눈물일것이니 이러한선율은여러분은엇더케解決할것인가?
出演 朴齊行、徐月影、南宮仙 池京順、車紅女 其他

月峰山人作 목메는아버지 一幕
풀밧헤머리를숙근아버지가、子息을爲하는마음、여기에反하야文化人이라는가를의逆行!이것이올우냐잘못된것인가?여러분의賢明한批判을바랍니다
出演 沈影、黃澈、柳喜李軒、金素英、韓銀珍 其他

南宮春作 말 못 할 事情 三景
우리들의살님가운데에는「말못할事情」이하도만타 그러면演劇舞臺우에버려지는「말못할事情」은어떠한것인가、한번이暴露한事情을보아주기바랍니다

西大門町 電光三三五番 東洋劇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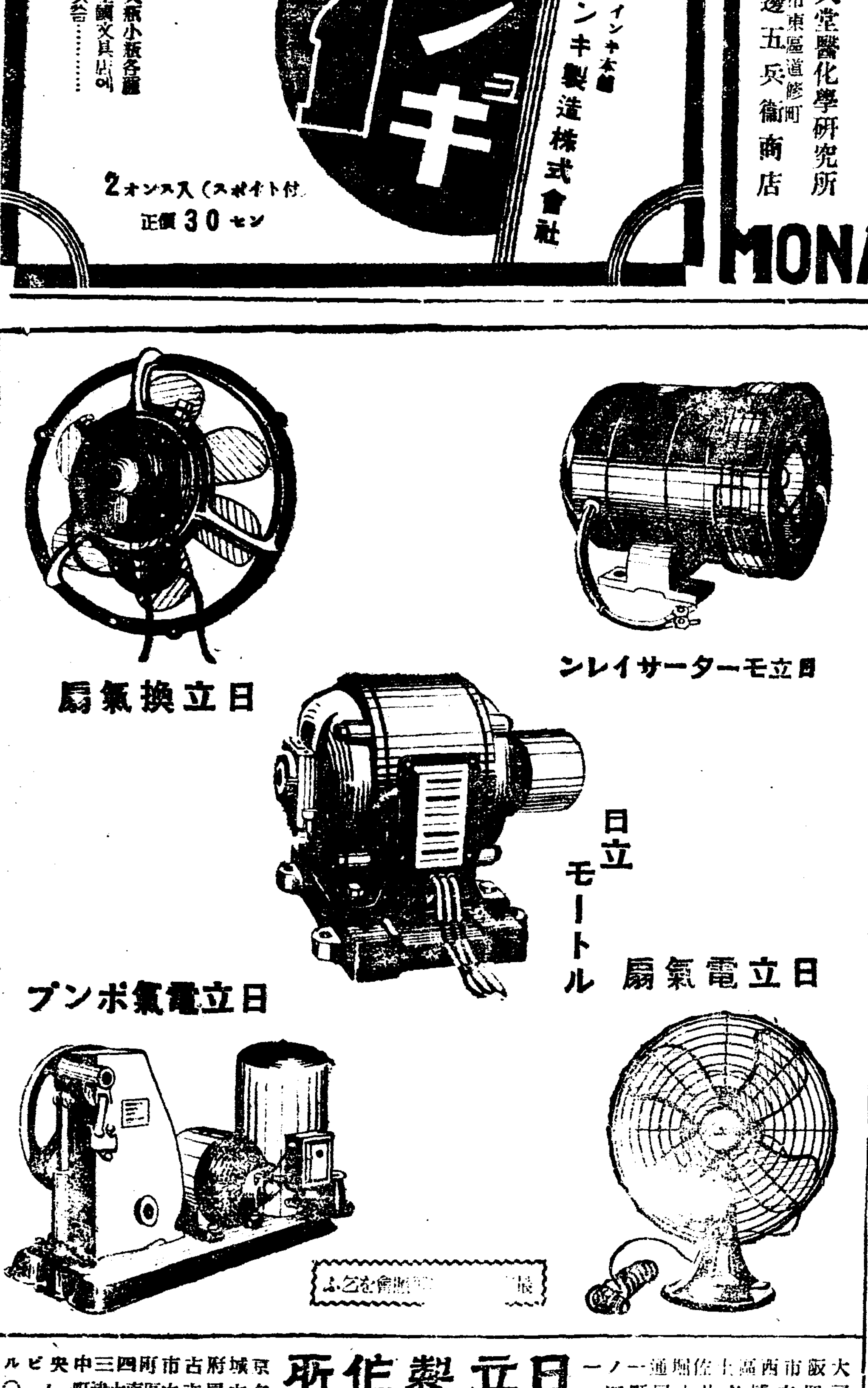
◇七月十三日부터三日間!
料金階上三十錢階下二十錢均一 土曜日曜祭祝日은晝夜二回公開 낫一時、밤七時四十分始映

◇유나이데트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名編 싸호는巨象
監督…리챠드뽀레스라브스키氏
名優…로날드콜만氏 絶讚…로렛다앙크氏 主演

◇米國파레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大爆笑篇 로이드의亂鬪王
監督…후렛드뉴메야氏
喜劇王…하로드로이드氏主演

◇大都映畵社特作連續篇
時代活劇 消中子短劍 後篇
監督…太田辰三氏
主演…阿部九州男氏
大週 곤고一部隊一芝居의決勝一

麻浦桃花町 電龍三三番 桃花劇場



日立製作所
東京・丸ノ內
大阪市西區土佐堀通一ノ一 福岡市博多片土居町四一 大連市紀伊町八五
京城府古市町四三中央ビル 名古屋市中區大津町一ノ一〇 札幌市南二條西十三丁目三一九

産業

移秧을하얏거든 灌排水에注意하라

稻作上當面重大作業

畓의 灌排水는 稻作上 重大한 作業이다 저 肥料가 缺乏한境遇 過히 자라서 倒伏될 念慮가잇는境遇 或은 病害를 이르킬徵兆가잇는때等 어느程度까지 灌排水로 이를 豫防하고 抑止할수가잇다 따라 그效果는 사람의 手腕如何로 多少의 差는잇슬지나 이제 大體의 標準에對하야보면 다음과갓다

一、移秧後一週間가량은 三寸가량의 深水로 灌水하야 泥土를 安定식히고 또 菌의 動搖를 防止하야 活着을 助成할것이다 活着한後는 稻의 所要水量에 缺乏을 告치안는限 極히 淺水로함을 잇지말것이다

二、分蘗期인 七月中旬頃으로부터 八月中旬頃까지는 絶對로 淺水로하지안으면 안된다 이때를 當하여서의 深水는 水溫과 地溫이 上昇함을 妨害하야 分蘗力을 阻害할뿐만아니라 稻의 發育에 납븐影響을 주어 莖葉을 軟弱케하니 注意하지안으면 안된다 이리하면 穗孕期까지約二個月間은 될수록 淺水로하야 一寸以內로하며 또 時時로 減水하야 四面을 따듯이하야根發育을 도와 莖葉을 꼿꼿히 育成하야 倒伏될 念慮가 업게한다

三、右와如한 注意를 하야도 天候로 或은 多肥로 倒伏될念慮가잇스면 灌水를 中止하야 그發育을 抑制하고 또 肥料缺乏의 徵兆가잇스면 減水치말고恒常 灌水하야 肥効의 繼續을圖謀할것이다

移秧도 거이 終了되엇다 移秧을하얏거든 以上과가튼 灌排水의 加減을 適宜하야 가을의 收穫增加를 圖함이 當面農家의 가장緊要한 일이라고생각한다 모름지이注意가 必要하다

全北錦山郡에서 濶葉樹保護植栽

全北錦山郡은 從來針葉樹赤松地帶이엿든바 大正 七八年頃부터 忠南大田、忠北沃川郡으로부터 松蛅蟖의 侵入으로 因하야 以來 其被害面積이 漸次擴大되여 其面積이實로 二萬九千町步에 達하얏슴으로 莫大한 經費와 勞力을 費하야 此驅除에努力하얏스나 此의根絶을 期키 不能한狀態이엿슴으로 昭和 七年以來 向後十個年計畫으로써 濶葉의伐採及萌芽採取를 嚴禁하는 同時에 每年二、三百町步의 樂林繁植造林에 努力하야온結果 其生育狀況이 良好하야 松蛅蟖의蔓延이 漸次減退狀態에 遷移하야 今數年來에는 自滅의域에 至케될것이라고한다

特殊鑛物資源 組織的으로調査

開發獎勵法도考究中

國防上 가장 重要한 各種의特殊鑛物은 朝鮮에 相當히 多量으로 埋藏되야 이開發은 國防計畫上 一日도 等閑視할수업는事實에 鑑하야 總督府에서는今年度로부터 特殊鑛物의 組織的資源調査에 進出키로 決定하고 豫算三萬圓으로써 그準備를 하든바 九月부터 鑛山課島村技師를 班長으로 技手、技術雇員等十數名의 調査班을 組織하야이것을 四班으로 난와가지고 一齊히 着手키로 되엇다 이調査는 今後 數年間 繼續할豫定인데 明年度는 다시 調査員을增員하야 調査의 徹底를期키로된바 一面 開發에 對하야도 國防要分擔의 意味上 金、鐵等의 例에依하야 特殊鑛物獎勵方法이講究될모양이라고한다

어름

涼味萬斛！이는 어름에잇서서 그極致를 보혀줄것이다 여름철만닥치면 아이스크림、氷水、아이스케익、아이스티ー、아이스커피ー等等여름飮料는 말할것도 업거니와 수박에도 어름、冷麵에도 어름 飮食貯藏에도 어름、어름은 實로 여름철飮食에는 直接間接으로 빼수업는 물건으로되엇다 큰 대접에 물울 하나가득떠다 어름을 깨어넛코 설탕이나 타서 쭉 드러마셔보라 온종일흘린 진땀도 雲散霧解 몸서리를 칠만치 등골이서늘하리라 涼味萬斛！涼味萬斛！

서울長安에서 하로에 消費되는 어름만하야도 二百噸乃至二百五十噸은되리다 얼마나 어름이 만히所用되는가를 可히알것이다 그어름에도 두가지가잇스니 하나는 겨울에 강에서 떠두는 天然氷이오 또하나는 사람이 만드는 人造氷이다 서울을 中心한 生産狀況을 보면 한겨울에 떠두는 天然氷은 一萬噸가량 人造氷은 세工場에서 하로에 만드는것이 百噸가량이다 그리하야 人造氷만으로는 하로의 需要를채워낼수업서 그 不足되는것은 天然氷으로 補充하고잇다 그런데 한 어름을 에워싸고 놀라는듯한 白熱的競爭을 한끄테 數三年來 合同을하느니 안하느니 問題가 끄시럽워오더니 올봄에는 겨우 의론이마저 合同이되어 서울의 어름은 한會社에서 독차지하게되엿다 이로 겨울에 서로 다로아 어름을하므로 떠서 부정한것을 내맥기든것은 防止되어 한갓순로 바랄지안흔것은 아니나 한 會社에서 독차지하고보니 어름갑시 빗싸지지 안흘가? 복날더위에 한여름동안 부닥기는長安사람들에게 싼 어름이나 먹게하야 주시오

土地測量標令 施行에對하야

大竹內務局長談

去二月六日 制令第一號로써 朝鮮土地測量標令이 發布되엇는데 이번 其施行規則의 發布와함께 그施行을 보게된 機會에 若干의說明을 試하야 參考에 供코저한다

從來 土地測量을 爲하야 設置하는 測量標에 關하야서는 朝鮮總督府令으로써 土地測量標規則이 設定되여 잇섯스나 其規定은 大正四年의 制定으로 相當히오래고 또 너무 簡潔하야 其後의文運에 伴치안는點이 만히 生하게되엿슴에 加하야 陸地測量部에서는 今後 朝鮮內의 三角測量을 施行할 必要를 生한結果 이번 本令의 制定을보게된것이다。以下 新法令에잇서 改正된 主要한點을 簡明히 記述하야보기로한다。

一、本令適用範圍의擴張＝從前의規定에 잇서서는 土地調査令에依하야 臨時土地調査局에서 設置하는 測量標에 關하야서만 適用되엇스나 本令에 잇서서는 國家에서 施行하는 一切의測量에 關한것에 及하얏다。例하면 地形測量、地籍測量、鐵道測量、道路測量及 港灣測量에 關한것은 勿論 따로規定의 設定이 업는境遇는 其他의測量에 關한것에도 及한다 그리고 特히 附言하고저하는것은 朝鮮에서 施行하는 陸地測量部의測量에 關한것에도 適用하게되엇다

二、測量을 施行하는境遇 미리 告示할것＝大凡測量을 施行하는境遇에잇서서는 他人의土地에 드러가거나 測量實施上障害가될 物件을 變更또는 除却하거나又는 測量標를 設置하기爲하야 他人의 土地를使用하는等의 事實行爲를 敢치안흐면 안될境遇가 만타 그런데 此等의 行爲는 一面 私人의權利에 影響을及하게하는 일이 잇슴으로 其權利保全의 意味에서 미리 測量의區域、期間及 種類等을 告示하야 一般에게 이를 周知케하도록 規定되엇다

三、入足等에 關한 同意又는 標石及 標杭設置、制限地의 設定＝從來는 測量을爲하야 他人의 土地에 드러가거나 測量標를設置하거나 或은障害物을 除却함에對하야서는 單只其所有者又는 占有者에 對하야 미리通知하면 足하게되어잇섯스나 新令에잇서서는 日出前又는 日沒後 他人의邸宅에 드러가거나 或은 公園地、鐵道用地 [illegible] 地域以外의 土地에는 別로手續을 要치안코 無斷히 이에 드러갈수잇는것을 明白히한것이다 무릇 前段列記의 地域以外의 土地라하면 大體 林野라든가 耕地라든가 或은 雜種地等으로 드러간다고 其土地의 管理經營에 別段支障을 招來하리라고 豫想할수 업슬뿐만아니라 測量의 區域은 普通廣大함이 普通임으로 其多數에亘한 地主 或은 占有者等에 一一히 事前通知를 行함은 實際에잇서서困難하기때문이다 그러나 第二項에잇서서 說明한 告示에依하야 其一般은 周知될것이다

四、測量에 從事하는 官吏는 證票를 携帶할것＝測量官吏는 他人의 土地에 드러가 測量을 行하고 測量標를 設置하며又는 障害物을 變更 또는除却하는等의 行動을 取치안흐면 안될境遇가 만타 그런데 此等의 行動은 一面 吾人의權利에 影響을及하는境遇가 잇슴으로 其測量官吏는 반드시 其身分을 說明함에足한 證票를 携帶케하얏슴은 當然한일이다

五、標石敷地는 이를 收用할것＝從來標石敷地는 이를國家에서 買收(但大部分은 寄附를 受함)하는方針을 取하야왓스나 元來標石은 一定한 位置에 設置되는것으로 普通敷地의 選擇을 許치안는 性質의것일뿐만아니라 其設置에 當하야서도 미리 敷地所有者의 同意를 求하는餘裕를 엇기가 困難하다 따라 新令에잇서서는 標石을 設置한때는 其敷地는 이를國家에서 收用하기로 定한것이다 特히 其收用에 關하야서도 土地收用令의 適用을 기다리지안코 直截簡明히 處理할수잇도록 本令中에 規定되엇다 그런데 右收用에 依하야 生하는 敷地所有者 及 關係人에 對한 損失의 補償에 關하야서는 雙方의 協議에 依하야 이를 定함을 原則으로 하얏스나 萬若 雙方의 協議 不調 又는 不能의 境遇에 잇서서는 地方長官의 決定을 仰하기로되엇다 그리고 補償의 公平正當을 期하기爲하야 右 地方長官의 決定에 異存이잇는境遇에잇서서는 다시 總督府의 裁定을 仰할수잇는 途를 開하얏다

六、標杭敷地에對하야서는 借地料를 支拂할것＝從來標杭敷地에는 借地料를 支拂하는 것이 거이업섯스나 新令에잇서서는 實狀에 順應하야 標杭敷地에對하야 借地料를 支拂할뜻의 規定을 明確히하얏는데 이는 法의 合理性을 保持하는데잇서 當然한 일이다 勿論 實際問題로서는 標杭敷地로서 所要面積은 極히 僅少함으로 地主가 입을 實害上의 損害는 計算할만한것이 못되는것이 大部分을 占하게될것이다 따라 오히려 其借地料는 辭退하마가지 못하다 하는이도 잇는바 其取扱에 關하야서는 實施에 當하야 適宜히處理할생각이다 그리고 工事의 必要上 設置되는標杭은 大槪國有地 또는國가 買收할 土地에 設置될뿐만아니라 其他의塞遇의 測量杭은 大槪假杭에 屬함으로 實際上借地料를 支拂하는境遇는 僅少하리라고 豫想된다

新鮮不變하게 三個月貯藏

牛乳貯藏에新考案

甁에너흔 生牛乳가 新鮮한 그대로 맛도 變치안코 三個月間은 가제 짜낸狀態로 保持될수잇는 機械가 考案되어 長期貯藏의 適當한方法이업서 頭痛中인 牧畜業者를 雀躍케하고잇다 但 이것은 米國에서 생긴이야기다

그機械는 寫眞에서 보는바와가티 또라이·스팀氣罐、移動하는벨트及甁을 眞空으로하야 마개를 密封하는 裝置로 되어잇는데 考案者는 市俄古의 一發明家이다

機械操作의 過程을 簡單히 述하면 爲先 파스치유르式殺菌法에依하야 殺菌한牛乳를 甁에 넛코 마개를 막지안코 移動式벨트上에 나란히 노흔다 그러면 벨트의 移動을 따라 그甁은 氣罐의 또라이·스팀의 作用을바다 다시 外表部가 殺菌되고 또 金屬製의 마개로 密封되게되어잇는데 이때 甁가운데는 脫氣되어 眞空狀態로되는것이다

이機械를 使用하야 密封한 甁의牛乳는 實驗한結果에 依하면 적어도 一個月은 完全한 狀態를 保持함이 確認되엇고 貯藏法如何에依하야서는 三個月가량까지는 延長할수잇슴으로 正히 牛乳業界의 革命이라하야도 過言이아닐것이다 따라 이機械의 出現으로 今後 牛乳配給方法이 一新될것이며 또 同國의 甁詰後의牛乳는 三十六時間以內에 販賣할것이라는 從來의 牛乳販賣規則까지 改正할 必要가생길것이다 (寫眞은 그機械와 說明하고잇는考案者)

◇

問 小生이 發明한 藥品을製造코저하오니 專賣特許 手續에 對하야 詳細히 下敎하시오 (安東郡 一讀者)

答 書式만 參考하시면 個人도 出願할수잇습니다 詳細는京城府光化門通 朝鮮特許代理局에 問議하시오

◇

問 硝子와 金屬과 琺瑯로만 드는 簡單한 機械를 製作코저 하오니 東京과 大阪에잇는 機械製作所를 下敎하시오 (鍾路五丁目二〇番地 韓東鉉)

答 機械의 名稱을 아지못하고는 말슴하기가 困難합니다

◇

問 小生이 山羊二、三頭를 買入코저하오니 販賣處와 價格을 下敎하시오 (江原 朴仲鎬)

答 京城 東小門外 골프場前 明本山羊牧場에서『자ー넨』種을 分讓합니다 同場에 問議하시오

鑛業權設定·移動

◇鑛業權設定

登錄番號	鑛種	鑛區所在地	登錄月日	鑛業權者住所氏名
一三二一	金銀鉛鑛	咸北吉州郡長白面	六月二十七日	東京市王子區稻付町 岩瀨亮
一三二二	金銀鉛鑛	江原蔚珍郡蔚珍面北面	六月二十七日	京城府鍾路四丁目 沈泰鉉 代表者 同府長沙町 沈軍鉉 同鍾路四丁目 金仁炫
一三二三	金銀銅鑛	慶北星州郡金水面	六月二十七日	高靈郡雲水面 李柄甲
一三二四	金銀鉛鑛	咸南文川郡都草面	六月二十七日	文川郡都草面 朴挺洙 代表者 北青郡北青邑 金正煥 文川郡明龜面 權朋相 利原郡南面 李治洙
一三二五	金銀鑛	慶南晉州郡晉水面 咸安郡郡北面	六月二十七日	晉州郡晉水面 許德貴
一三二六	金銀鑛	慶南居昌郡高梯面 熊陽面	六月二十九日	居昌郡居昌面 愼斗伯
一三二七	金銀鑛	平北朔州郡九曲面	六月二十九日	東京市麴町區丸內 東亞殖産株式會社
一三二八	金銀鑛	平南昌城郡新倉面	六月三十日	京城府仁寺町 金斗榮 代表者 同長沙町 薛元植 同薰井町 金春三 昌城郡青山面 姜鳳瑞

◇鑛業權移轉

登錄番號	鑛區所在地	登錄月日	鑛業權者住所氏名
九〇八〇	全北鎭安郡顔川面 銅鄕面	七月一日	全州府大和町 酒井彥七
一三一七五	慶北漆谷郡東明面	七月二日	京城府大和町 中村忠吉
一一〇九八	咸南永興郡橫川面 高原郡水洞面	七月二日	元山府銘石洞 代表者 金浩鉉 永興郡鎭坪面 韓成華
一二〇一九	咸南長津郡新南面 中南面	七月二日	東京市麴町區丸內 日本鑛業株式會社

朝鮮産原料로 酒精工業을助成

馬鈴薯、米等의酒精化頗有望

燒酒製造業의一轉期

燃料國策의 見地에서 朝鮮에서도 旣報와如히 알콜混用消費獎勵를 行하기로되엇는데 이와併行하야 朝鮮의 알콜精製工業의 積極的助成을 行하려고 殖産、農林、兩局에서 硏究中이다 現在 朝鮮內알콜工業이라고를것은 燒酒製造가잇슬뿐으로 主로이는 臺灣移入의 甘蔗、滿洲輸入의 高粱等이 精製되고잇는바 燃料國策인點으로보아朝鮮內自給自足의 可能한 馬鈴薯、米、黍等으로 生産식힘이 妥當하다하야 이方面의 調査를 進行하고잇다 馬鈴薯의 알콜化는 이미可能性이 確認되고 米의알콜化도精米 其他의 利用으로 發展餘地가잇서 問題는 그消化와 採算인데 그助成策으로 工業的으로 可能性이 期待되고잇다

朝鮮會社異動

六月中의狀況

【十三日京城商議調査】六月中朝鮮內 會社移動은 다음과갓다 (以下單位千圓)

	社數	公稱資本	拂込資本
▲新設			
株式(本店)	三〇	五、三四五	一、八〇三
同(支店)	一一	六、〇〇〇	六、〇〇〇
合資	一〇	一九九	一九九
合名	六	四八	四八
計	四七	一一、五九二	八、〇五〇
▲增資			
株式	七	一、二三二	一、〇三二
合資	四	三六	三六
計	一一	一、二六八	一、〇六八
▲拂込			
株式(本店)	一四	―	五五五
同(支店)	二	―	三〇
計	一六	―	五八五
▲減資			
合資	二	七	七
▲解散			
株式	七	一五〇	一三八
合資	一三	八〇	八〇
合名	二	一三	一三
計	二二	二四三	二三一

土地測量標令 施行細則公布

七月十五日부터實施

朝鮮土地測量標令의 施行細則은 總督府令五十六號로 十四日付公布 七月十五日부터 實施하기로 되엇는데 從前 測量標規則에 代身하야 測量標令에 依하야 制定된 主要點은 다음의 各項에 亘하야잇다

一、測量標의 適用範圍擴張＝從前은 土地調査局의것에關하야서만이엇스나 此後는 國家에서 施行하는 一切의 地形 地籍 鐵道 道路 港灣에도及할것

一、測量施行上 미리告示를할것

一、入足等에 關한 同意 又는 標石 標杭의設置制限地의設定

一、測量에 從事하는 官吏는 證票를 携帶

一、標石敷地는 이를 收用할것

鮒魚養殖法

이러케하면簡便하다

農家副業으로 鮒魚를 養殖하면 어떠하겟느냐고 뭇는이가 만타 그야 爲先 販路를 考慮하야할것으로 販路만잇스면 有利할것이고 販路가 업스면 그리 推獎할수도 업는것이다 그러하니 養殖地 近方에 販路는 充分한지를 잘調査하야 가지고 養殖에 着手함이 安全할것이다 그는如何間 다음에 그養殖法을 簡單히 적어 參考에 供하기로한다

親鮒魚의飼育

鮒魚의 蕃殖은天然으로 産卵한것을 採集하야 孵化養成하야도되나 이러케해서는 優秀한 成績은 期待하기어렵다 그럼으로 爲先 親鮒魚를 選擇하야 飼育함이조타 鮒魚도 여러자지 種類가잇슴으로 同種同系統의 發育이 良好한것을 選擇하야 雄은年齡四ー五歲以上 體量ー三百匁以上의것을 使用하고 雌는 年齡三ー四歲以上、體量 六十匁以上 二百匁가량의것을 使用함이조타 親鮒魚의雌雄鑑別法은 産卵期에는 容易히 區別할수잇다 即雌는 腹部가 豊大하고 成熟한것은 쥐어보아 軟한 感이잇다 雄은 腹部가 雌처럼 豊大하지안코 肥大하지안흐며 全體가 紡錘形이다 그리고 雄의腹部를 가만히 누르면 生殖孔으로부터 乳白色의 精液을漏出하는것은 成熟한 證左이다

親鮒魚雌雄의 比例는 一尾에對하야 雄二ー三尾가 조코 鮒魚는 池에 잘 익어지지안흠으로 前年부터 잘 익어지도록 飼育하야둘 必要가잇다 또 餌料等도 親鮒魚는秋季부터 脂肪質과 澱粉質이 豊富한것 卽 蛹이라든가 大麥을 살믄것等을 充分히 給與하야 冬寒의 健康에備하고 春季에는 지렁이이나 우렁이等을 細碎하야 주어 生殖腺의 成熟을 圖함이 조타

採卵과孵化

春季五、六月頃 産卵期가갓가와오면水面上에 꼬리와 지느러미를 내놋커나 뛰놀아不安焦燥한 狀態를 보이게됨으로 大體産卵期를判別할수잇다 그러나 産卵은 不規則하야 産卵期中에 하기쉬움으로 産卵期가각가오것을 察知하얏스면 미리 二坪의 面積에 水深二尺가량의 池를淸掃하고 新水를注入한 가운데 雌一尾、雄二ー三尾의 比例로 노아주고 魚巢를 給與하야두다 魚巢는藺類、柳根等을 색기에끼워 水面에 띄워둔다

이러케두면 天氣가 晴朗한日産卵의 魚巢를 檢査하야 幾分盤大인날에 産卵함으로每日産卵하거든 適宜히 卵粒이附着함을 기다려 魚巢를 꺼내어 孵化池로 옴긴다

孵化池는 面積이一坪가량 深五寸가량으로 水의 注排가 自由롭고 水溫이 攝氏二十度內外의 곳이조타

産卵은 早朝부터 始作하야 午前十時頃에 못마친것이 普通인데 一日에 全卵數를 産卵하는일도잇고 二ー三日에亘하는일도잇스니 注意를 要한다 또 鮒魚는 孵卵에 溺害해가쉬워 産卵을 中止하는일이잇스니 注意함이必要가잇다 卵의 孵化日數는 攝氏二十度內外의 水溫이면 産卵ー三日로 發眼하야 六ー七日만에 孵化한다

鮒魚兒의養成

孵化한 鮒魚兒는 腹部에臍囊을 갓고잇서 그榮養을 攝取함으로 別로 給餌할 必要는업다 그러나 이것도 三日가량으로 모다吸收하는데 그때쯤되면 口器와 消化器가 完備되게됨으로 이때에 미리 養殖하야 두엇든 미징코를 採取하야다가준다

다음에는 人工餌料로서 粉米、豆粉、蔘粉等을 살머주고 또는 蛋蛹、지렁이等을 준다 放養함에 適當한 尾數는水의 流通이 相當히 조흔곳에서 孵化後三十日頃까지 體長八ー九分의것을 一坪當 千尾內外 六十日까지 體長一寸四ー五分의것을 一坪當二百尾內外 九十日頃까지 體長二寸前後의것을 一坪當六十尾 體長二寸五分가량의것은 一坪當四十尾가량의 比例를 標準으로하고 이보다 적게는할지언정 만케는하지안토록注意할것이다 그러나 一般으로는 稻畓이나 溜池를 使用하야 鮒魚를 養殖하고잇는데 特히 稻畓利用은 어느土地에나 適合하고便利하다

그方法은 稻畓의 畦畔을 特히놉고 堅固하게 쌋코 水의 出入口는 逃避를防止하도록完完한 方法을 取하며 特히水의入口는 鮒魚의 溯上을 防止하기爲하야 水가 落入하도록하야두면 溯上逃避를 防止할수잇다

또 稻畓의군데군데에 五ー三尺四方의 水深一尺以上의 水溜(웅뎅이)를 만들고 여기에 一寸目가량의 鐵網을 덥퍼 鮒魚만이 自由로 出入할수잇도록하야두면 水禽에게 食害됨을 防止하는同時에 洪水의際는 여긔에 集團함으로 逃避를 防止하는 効果가잇다

그리고 水溜는 植稻의際 稻畓을 落水하면 여긔에 集團함으로 簡單하고 容易하다

稻畓의 放養數는 段當 毛仔六千尾 二歲鮒魚一千尾가량으로하고 人工餌料를 充分히주면 秋季에는 當歲鮒魚二ー三寸의것을五千尾 二歲鮒魚二ー三十匁의것을六百尾가량어들수잇다

溜池養殖

適當한 溜池가잇는곳에서는 이를 利用함이 有利하다

그方法은 鯉魚와 鮒魚를 석거 養殖하야도조흔데 稻畓 그他의 池에서 養殖된 一尾의 重量三匁가량의것을面積一段步에對하야三千尾가량과가튼比例의、兒三百尾가량을放養한다

餌料는 우렁이 米糠 大豆粕 蠶蛹等으로 氣候가 寒冷한 春秋에는 主로 一旦 살믄 大麥 豆粕等의 植物質과 脂肪이적은 우렁이를 生재로 細切하야주고 氣候가 溫暖하야저서 池의 水溫이 攝氏二十三度以上에 達하면 乾燥蠶蛹을 水에 浸潰하얏다가준다 投餌回數는 一日一ー三回로하고 殘餌가 업는限 鮒魚가 要求하는대로 준다。이러케하면 收納尾數는 大體 放養尾數의 約七割가량된다

黃昏 (132)

韓雪野 作 安夕影 畵

방황(彷徨)(五)

철이 바기엿스니만치 옷도 그전엣것이 아니오, 모습도 변해진것가트나 아무리보아도 분명 려순이다。쪽빠진 몸집、눗눗한다리 일치선상으로 옴기여지는 동동한 걸음거리가 일호의의심도업다。그래도 그는자기의눈을 한번더 의심하며 맷걸음 뎌가까히 쪼차갓다。

「려순씨…」

숨이 급해서 소리가 너무 적어젓다。그래서

「려순씨!」

하고 그는 재처 크게 불럿다。그리자 아프로 무섭히 걸어가든 그녀자는 힐끗 돌아다보고 또 놀란듯 놀라는기색까지 뵈엿스나 곳 머리를 돌리고 좀 빠른걸음으로 걸어간다。얼골까지 보아도 틀림업는 려순이다。그래서 경재는 좀더 걸음을빨리하엿다 그녀자의 걸음도 행결 빨라젓다。경재의 눈에는 그녀자의걸음이 자긔의걸음보다 훨신 빠른것가티뵈엿다

아프로가든 녀자는 뒤로 쪼차오는 발소리를 그리고 그보다도 뛰는 심장소리를 피하듯이 겻골목으로 픽돌아서버렷다。

일순간 그모양을 일흔 경재는 황겁히 훌적 뛰어 골목을 돌아서 그의 뒤를 다조차섯다

「려순씨! 려순씨 아닙니까?」

더의심할여지가 업는니만치 경재의목소리는 크고 대담하엿다。려순은 마춤내 돌아서고야 말앗다。

「아! 김선생、웬일이서요?」

하고 려순은 그제야 첨 들은드키 위청 놀라는소리를 내엇스나、그표정은 심히 침착하엿다。이자리의 첫인상부터 경재에게는 실망으로 나타낫스나 그런것을 헤아릴때가아니엇다。

「려순씨! 그저 서울 게셋습니다그려?」

「아니요!……」

「…………」

「시굴 갓다가……왓서요」

「시굴요?……」

하고 경재는 되바다 물엇스나、그것이 참말 자기가 들으라는말이 아닌것가테서 짐짓 말을 끈혓다。

그러나 그리면서도 한편 무슨애기든지 죄다 샹샹이 듯고시펏다、시굴것다오게과도 물론 듯고시펏다、그리고 그보다 엇재서 그러케 가버렷는지도、또 는 그사이 엇더케지냇는지도 죄다 알고시펏다、그리고 그보다 더욱더 알고시픈것은 그의심경이엇다、남김업시 그의 맘을 뚜드려보고시펏다。그리하야 현재의 심정을 알아보깃음은물론、장래에 취할바 그의태도까지알아보고시펏다、말하자면 그것이 매알고시픈 초점이엇다。그러나 그것은 한두마디로 물을수도업는일이오、또는듯을수도 업는일이엇다。그것을 물어볼수잇슬가、또 그뭇는것이 자긔의의사와는 반대로 기대에 어그러지는 대답을가저올 위험도 다분히 잇는듯 하기도하엿다。이러한 복잡한 심정은 실로 형언할수 업는 란무(亂舞)를 가슴가운데 펴노코 잇섯다。머리ㅅ속에는 하고시픈 말이 너무도만흐엿다。그래서 도리혀 무슨말을 꺼낼지 조흘지 몰랏다。얼핏가슴을 어느새 어떠케 마른가지가지고 어디서부터 뽑아내엇스면 조흘지몰랏다 그리하야 다만 조급한생각이 제가슴에 꽉 맥힌생각을 저도 모르게 아무데로부터나 함부로 일어내뿐이엇다

「엇재 그러케 소식이 업섯습니까?……편지라도 할가하엿습니다만 주소를 알수잇서야지요」

「인제、차차 아시겟지요」

「차차요?……」

하다가 경재는 급히 말을돌려가지고、

「그런데 좌우간 한번 만나서 애기、좀 할거잇는데요……물론 려순씨、생각은 어떠까지든지 존중합니다만 내생각도 좀 말하고시픈것이 잇구해서……」

「네……」

하고 려순은 가벼압게、넘겨버릴뿐。

「지금 어듸 게십니까?」

「차차 아서게되겟지요」

「아니、뭐……오해하실건업습니다」

「아니요……」

하고 려순은 그말을 피하야 다른말을 꺼내려하엿스나 얼핏생각나는것이 업섯다。경재와 현욱의 그후의 관게가 녀자의섬세한신경을 얼른 건드리엇스나 그것은 말하고 십지도 안핫고 또 말할필요도 업섯다。

그리고 자기의주소는 어듸까지든지 비밀에 부처두려하엿다。그것을 알리는것은 모처럼 자기자취해온 행동을 헛되히 허무러 버리는 결과를 가저올것가테서 한편으로는 아직도 미련과괴롬이 잇스면서도 구지 말치안햇다。

그럴판에 현욱이가 얼굴을 불숙히해가지고 차자와라 한걸음 뒤떠러저 봉우도 와잇다。